

## 전시회 및 컨퍼런스

### 메세 뒤셀도르프(Messe Düsseldorf) K 2019 전시회 온라인 참가신청 2018년 5월 31일까지

K 2019 온라인 출품등록이 지난 1월 11일 시작되었다. 세계 최고 규모로 준비되는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 전시회인 K 2019 출품신청은 전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K 2019는 독일 뒤셀도르프 박람회장에는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참가신청 양식은 [www.k-online.com](http://www.k-online.com)에 필요한 로그인 절차를 마치면 작성 가능하다.

K 2019에 출품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2018년 5월 31일까지 온라인 등록을 마쳐야 한

다. 전시 주최사인 메세 뒤셀도르프(Messe Düsseldorf)는 이번에도 최대 규모의 전시참가 등록이 접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전시참가 등록은 편리한 여러 가지 기능들로 해서 더 빠르고 쉬워졌다. 2016년 K 전시회에 출품했던 기업은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한 뒤, 변경된 사항만 업데이트 해주면 된다.

처음 출품하는 기업은 온라인 상에서 안내하는 등록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원하는 부스의 종류와 크기를 선택하고 출품하고자 하는 제품을 메뉴에 표시된 카테고리에 따라 지정해주면 된다. 직접상담이 필요하면 전세계 74곳의 메세 뒤셀도르프 해외 에이전트 및 지사망에 연락하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 2019의 전시품목은 기계 및 장비, 원재료 및 주변기기, 반가공품, 기술부품, 강화플라

스틱 등을 망라한다. 지난 K 2016 전시회는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이 맞고 있는 '전에 없이 우호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밝은 미래 전망 속에서 치러졌다.'

전세계 161개국에서 찾아온 232,000명의 업계 관련자 및 전문가들이 전시장을 찾아 3200개가 넘는 출품사들이 선보인 혁신제품들에 관심을 표했다. 전시회에 참가 및 참관 기업들은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전시 현장에서 서 곧바로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 PLAST 2018 전시회 방문자 사전등록 개시

이탈리아 밀라노 인근 소도시 Rho-Pero 소재의 전시장 FieraMilano에서 오는 5월 29일(화)에서 6월 1일(금)까지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 전시회 PLAST 2018

의 방문자 온라인 사전 등록 서비스가 지난 1월 15일부터 개시됐다.

전시회 홈페이지 [plastonline.org](http://plastonline.org)에서 방문자로 사

전 등록하면, PLAST 2018 및 그와 함께 '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Innovation Alliance)' 기치 아래 열리는 가공 및 포장기술전 IPACK-IMA, 육류산업의 가공 및 포장기술전 MEAT-TECH, 프린팅기술전 Print4All, 물류 및 창고관리 기술전 INTRALOGISTICA ITALIA 등을 참관할 수 있는 무료입장권을 2매까지 요청할 수 있다.

지난 2015년의 PLAST 전시회는 115개국에서 700여 비(非) 이탈리아 전시출품업체와 1만 8000명 이상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역대 최고의 규모로 성황을 이루었다. PLAST 전시회 사무국은 여행사 Gattinoni Travel Network와 협약을 맺고 전시참가 기업 및 방문자들에게 운송 및 물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탈리아 입국비자 취득 관련 업무까지 지원해준다.

정부기관인 이탈리아 무역공사의 협력 및 지원으로, 한국을 포함한 30여 개국으로부터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압출, 블로우몰딩, 사출성형, 열성형, 리사이클링 등 PLAST 2018에 출품한 다양한 기계 분야의 이탈리아 기업들과 집중적인 B2B 미팅과 현지 공장 방문도 추진된다.

"아직 전시 개시까지 4달 이상 남았지만, 이탈리아 국외에서 PLAST 2018에 직접 출품하고자 신청을 마친 기업들이 800여 곳을 넘었고, 이들이 요청한 전시공간만도 5000평방미터를 훌쩍 넘어섰다. 출품 희망 기업들의 기대가 매우 긍정적이며 이탈리아뿐 아니라 국외 기업들의 참가가 크게 늘어나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관련 산업 전시회의 하나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